

유쾌한 시골 영감

1. 일반현황

조사일시	2017.04.21.	조사자	김태연	유형구분	문화예술-연구진제안
------	-------------	-----	-----	------	------------

대상명	유쾌한 시골 영감
-----	-----------

□ 대상의 개요

보존대상의 특성	무형	물리적형태	-	보존대상의 가치범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서울단위 <input type="checkbox"/> 마을단위
----------	----	-------	---	------------	--

가수	강홍식	작사가	범오	작곡가	-
음반 제작연도	1936년	음반 제작사	콜럼비아레코드	음반 규격	-

가사	<p>시골영감 처음 타는 기차 놀이라 차표 파는 아가씨와 승강을 하네 이 세상에 예누리 업는 장사가 어디잇나 깎어대자고 줄라대니 원 이런 질색이 하</p> <p>기차란 놈 뛰-하고 떠나 갑니다 영감님이 깜작 놀라 돈을 다 내며 깎지 않고 다 널테니 날 좀 태워다 주 저 기차좀 분드러요 돈 다 널테니 하</p> <p>다음 차는 만원이라 자리가업서 옆에간을 슬적보니 텅텅 비엿네 올타구나 땡이라구 슬적 앉앗드니 표검사에 이등이라구 돈을 더몰어 하</p> <p>이력저럭 서울에를 도착하여서 인력거를 타시는데 발판에 안저 우로올나 앉으라니 영감님 말슴 이등타면 돈더 맞게 나는 실코매 하</p>
----	---

평가	<p>1950년대에는 양석천이 불렀고, 1960년대 이후부터는 서영춘이 주로 불러 많은 사람들이 알고 부르는 <서울구경>의 원곡은 원래 1936년에 강홍식이 부른 <유쾌한 시골 영감>이다. 그리고 이 노래의 원곡은 조지 존슨(Gorge W. Johnson)이 1898년에 녹음한 <Laughing Song>이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유쾌한 시골 영감>은 일종의 번안곡인 것이다.</p> <p><유쾌한 시골 영감>은 빠르고 경쾌한 곡조에 웃음소리까지 더해져 음악적으로는 밝고 명랑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 가사 또한 “시골 영감님께서 서울 구경을 떠나셨는데, 자못 유쾌한 장면이 많았겠다”로 시작하면서 1절부터 4절까지 시골 영감이 처음으로 기차를 타고 서울에 도착해 인력거를 탈 때까지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재미있게 묘사하고 있다.</p> <p>하지만 단지 웃고 말기에는 찻찻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노래 속 시골 영감은 차표 값을 깎아달라고 차표 파는 아가씨와 승강이 하고, 기차 안 빈자리에 앉았다가 돈을 더 물기도 하고, 서울에 도착해서는 돈을 더 낼까 겁나서 인력거 발판에 앉기도 한다. 이러한 시골 영감의 황당한 실수들이 어쩌면 근대의 여러 모습에 적응하지 못한 채 표류하는 일반 대중의 모습을 대변한다고 볼 수도 있다.</p> <p>그래서 노래를 들으며 함께 웃다가 문득 시골 영감의 입장이 되어 보면 안타까움과 연민을 느끼게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유쾌한 시골 영감>이 전하는 웃음은 조롱에 가까운 풍자의 웃음이 아니라 동정이나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해학의 웃음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1930년대의 달라진 도시 풍경을, 시골 영감으로 표상되는 시골이나 전통과 대비하여 재미있게 풀어낸 작품이다.</p>
----	--

2. 보존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30년대 서울의 사회상과 서민들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음 - 서울의 근현대 대중문화를 대표하는 하나의 표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음
--


3. 활용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과 연관된 노래에 대하여 기록화하고 자료를 수집 - 시민홍보를 통해 작품의 가치를 일반 시민들과 공유

4. 소유자(관리자) 면담

면담자	
면담내용	

5. 인물(사건)에 관한 기본정보

이름	강홍식 (姜弘植 , 1902년 ~ 1971년)	인물사진	
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02년 평안남도 평양 출생 - 1917년 일본 도쿄 다이조 중학교 입학 - 1920년 동경오페라단 입단 - 1925년 영화 '장한몽' 으로 조선영화계 데뷔 - 1929년 신파극단 최성좌에서 활동 - 1930년 최성좌 탈퇴 후 조선연극사 입단 - 1933년 조선연극사 탈퇴 후 빅터레코즈사 전속 계약 - 1946년 북조선연극동맹 중앙위원 활동 - 1951년 조선영화동맹 위원 역임 - 1971년 함경남도 용덕수용소에서 사망 		
주요 작품 및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7년 영화 「면동이 틀 때」 주연 - 1934년 노래 「처녀총각」, 「이 잔을 들고」, 「조선타령」 - 1935년 노래 「면동이 터 온다」 - 1936년 노래 「유쾌한 시골 영감」, 「낙화암의 천년꿈」 - 1949년 북한 최초의 극영화 「내 고향」 연출 		
수상경력	-		
기타사항	-		

※ 출처: 한국현대문학대사전 [강홍식] (<http://terms.naver.com>), 한겨레음악대사전 [강홍식] (<http://terms.naver.com>), 위키백과 [강홍식] (<https://ko.wikipedia.org>)를 바탕으로 재정리

6. 기타사항

□ 가요앨범 리뷰 - 유쾌한 시골 영감

1936년 콜럼비아레코드에서 발매한 <다이나>와 <유쾌한 시골 영감>은 서양 대중음악이 번안곡으로 토착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재즈 송’이라는 갈래명을 달고 나온 두 곡 중 <다이나>는 여러 차례 발매되며 사랑받았고, <유쾌한 시골 영감>은 <서울 구경>이란 제목으로 1970년대에 다시 인기를 얻었다.

만요와 재즈 송의 교섭, <유쾌한 시골 영감>

<유쾌한 시골 영감>은 범오가 작사한 가사에 콜럼비아 재즈 밴드의 반주에 맞춰 강홍식이 노래했다. 음악적으로는 서양 대중음악의 영향을 받은 재즈에 속하지만, 문학적으로는 웃음을 자아내는 만요(comic song)에 해당한다. 원곡은 조지 존슨(George Johnson)이 불러 1898년 발매한 <The Laughing Song>이다. 흑인 민요를 의미하는 쿤 송(Coon Song)의 일종인데, 1891년경부터 음반에 수록되기 시작했다. <The Whistling Coon>과 더불어 미국에서 상당한 인기를 얻었던 <The Laughing Song>은 우리나라에서 <유쾌한 시골 영감>이라는 제목으로 발매됐다. 시골 영감이 생전처음 서울 가는 기차를 타면서 겪는 일을 웃음으로 풀어낸 곡인데, 문명의 수혜를 받지 못한 시골 영감이 좌충우돌하는 모습은 웃음과 연민을 자아낸다. 원곡과 마찬가지로 각 절의 마지막 부분에 첨가된 ‘하하하’ 하는 웃음소리가 이 노래의 주요 부분이다.

배우 출신 가수 강홍식의 행보

1935년 실시된 ‘레코드 가수 인기투표’에서 매년 5위 안에 들 만큼 인기를 얻었던 강홍식은 활동 당시 “우렁차고 활기 있고 남성적인 목소리”를 지닌 가수로 평가받았다. 이시이바쿠 무용연구소에서 무용부터 배운 강홍식은 극단에서 배우로 활동하다 영화계를 거쳐 가요계로 진출한 대표적인 배우 출신 가수였다.

왕평의 추천으로 포리돌레코드에서 처음 유행가를 불렀으나 자꾸 틀렸다고 지적하는 독일인 녹음 기사와 싸우고 포리돌을 나와 콜럼비아레코드에 입사했다. 강홍식은 자신처럼 배우 겸 가수였던 전옥과 결혼해 사 남매를 얻었는데, 그중 한 명이 배우 강효실이다. 강홍식은 전옥과 헤어진 후 북한에서 1971년 가을 즈음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미디언이 불러 만요로 정착한<유쾌한 시골 영감>

<유쾌한 시골 영감>은 <서울구경>이란 제목으로 다시 인기를 얻었다. 1970년 유니버살레코드에서 발매한 「웃음따라 요절복통」 1집에서 서영춘이 노래했고, 같은 해 대도레코드에서 발매한 「만담걸작집」 음반에는 양석천, 오길래의 대화와 양석천의 노래로 수록됐다. 이후에도 <서울구경>은 계속 불렀고, 2001년에는 이상화의 음반 「관광디스코」 5집에 실렸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유쾌한시골영감 / 다이나 - 강홍식 / 강홍식, 안명옥 (가요앨범 리뷰, 한국대중가요연구소)

□ 관련기사 “[이동순의 가요 이야기] 강홍식(상)”

가수 강홍식(姜弘植`1902~1971)의 삶은 맨 처음 배우로 출발했습니다. 식민지 조선에 영화산업이 처음 들어왔을 때 평양 갑부의 아들이었던, 명석한 청년 강홍식의 가슴속은 이미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으로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예나 제나 그렇겠지만 어떤 일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기는 인물들은 거의 하나같이 부지런하며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졌던 듯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강홍식도 예외가 아니어서 고등보통학교 재학 중 무단가출을 했고, 바로 일본으로 도망치듯 떠나가서 오페라 극단의 견습생, 배우생활 등 영화 동네에서의 밑바닥을 체험했습니다. 마치 환한 불빛을 보고 멀리서 나방이 홀린 듯이 달려가듯 영화라는 신문물에 대한 활화산처럼 끓어오르는 호기심을 억누를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이토록 강홍식의 피와 가슴을 걱정 속에 빠트린 것일까요?

강홍식이 태어난 1902년은 우리 민족이 봉건적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안간힘을 제대로 쓰지도 못한 채 식민지 제국주의자들의 조직적 유린과 수탈에 모든 것을 송두리째 내맡기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무엇이든 배워야 살고, 무엇이든 벌어야 끼니를 이을 수 있던 위기감이 팽배하던 시절, 이러한 때 강홍식에겐 영화야말로 위기를 돌파하게 해줄 수 있는 진정한 통로라는 신념이 들었던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강홍식에게 여러 대중 예술장르 중 가장 잘 어울리고 기질과 취향에 잘 들어맞는 역할이 생겼으니 그것이 곧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였습니다. 공연 중 막과 막 사이의 빈 여백을 막간(幕間)이라 하는데, 이때 관객들은 공백이 무료했습니다. 이 무료함을 즐거움으로 바꾸어주는 역할이 바로 막간 가수였습니다. 굵은 남저음 바리톤으로 막간에서 부르는 강홍식의 구성진 노래에 대하여 관객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만큼 강홍식의 음색에는 묘한 여운이 들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정겨움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이랄까. 본질에 대한 애착을 환기시켜주면서 동시에 회복에 대한 강렬한 염원으로 끓어오르게 만드는 작용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강홍식 창법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강홍식이 가수로서 본격적인 취입과 활동을 하게 된 것은 물론 일본의 우수한 레코드 회사들이 서울에 지점을 열기 시작한 직후의 일입니다. 강홍식은 1933년 4월 포리돌레코드사에서 유행가 ‘만월대의 밤’ (왕평 작사·김탄포 작곡·포리돌 19060)을 첫 작품으로 발표하면서 정식가수로 데뷔했습니다. 이어서 빅터레코드사로 옮기면서 그의 가수생활은 더욱 날개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삼수갑산’이 뜻밖에도 히트하면서 가수로서 강홍식의 주가는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때 콜럼비아레코드사에서 이적을 제의해 왔고, 1933년부터 1936년까지 세상은 온통 강홍식의 무대였습니다.

특히 구성진 전통적 색조가 느껴지는 가락과 길게 뽑아내는 유장한 느낌으로 실실이 이어져가는 독특한 여운 및 그러한 정서를 재치 있게 활용한 노래 ‘처녀총각’은 당시 피로한 식민지 백성들에게 크나큰 위안과 격려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든 강홍식이 부른 ‘처녀총각’을 흥얼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 관련기사 “[이동순의 가요 이야기] 강홍식(하)”

1934년 2월에 발매되었던 유행가 ‘처녀총각’ (범오 작사·김준영 작곡·콜럼비아 40489). 이 한 곡으로 강홍식의 위상은 배우 경력을 가진 인기 레코드 가수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노래는 당시 극단 단성사의 음악 담당이었던 김준영의 남다른 센스와 솜씨로 만들어졌습니다. 서울 국립관 뒤의 어느 여관에서 극단 멤버들이 술을 마시며 시간을 즐길 때 술에 취해 거나해진 강홍식이 콧노래로 ‘홍타령’을 불렀습니다. 이를 너무나 재미있게 들었던 김준영이 즉시 악보에 옮겨서 ‘처녀총각’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봄은 왔네 봄이 와
숫처녀의 가슴에도
나물 캐러 간다고
아장아장 들로 가네
산들산들 부는 바람
아리랑타령이 절로 난다
홍~~~~

새싹이 돋고 훈풍이 불을 간질이는 삼사월 봄날, 은근하고 구수한 전통적 색조가 물씬 풍겨나는 이 노래를 듣거나 부르노라면 그 봄이 더욱 흥겹고 즐거워지는 효과가 물씬물씬 솟구쳐 오릅니다. 이 음반은 무려 10만 장 넘게 팔려나갔다고 하니 참으로 엄청난 매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옛 가요 ‘처녀총각’은 현재 남북한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 민족이 함께 즐겨 부르는 노래로 분단을 뛰어넘은 몇 안 되는 대표적 가요 작품 중 하나입니다. 당시 어느 잡지사에서 조사한 인기투표에서 강홍식은 서열 3위에 올랐습니다.

1934년 이후 강홍식의 대표곡으로는 ‘이 잔을 들고’ (김안서 작사·신진 작곡·콜럼비아 40491) 등 10여 곡이 넘습니다. 작사가로서는 ‘범오’란 예명을 썼던 시인 유도순, 시인 김안서 등과 주요 콤비였습니다. 작곡가로서는 주로 김준영과 단짝을 이루었습니다.

참으로 씩씩한 곡조와 경쾌한 테마로 구성된 ‘먼동이 터 온다’ (범오 작사·김준영 작곡·콜럼비아)는 강홍식의 대표곡 목록에서 결코 빠뜨릴 수 없습니다. 이 노래는 동해안 작은 어촌의 아침풍경을 민요풍으로 만든 네 박자 곡입니다. 만선의 기쁨을 안고 돌아오는 남정네와 그들을 기다리는 포구의 여인네들을 다룬 아름다운 한 폭의 서정적 풍경과도 같습니다. ‘청춘타령’ (유도순 작사·김준영 작곡·콜럼비아 40610)도 대표곡 목록에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강홍식이 남긴 노래들 중 신민요 계열의 작품이 상당수입니다. 그것은 강홍식의 구성진 창법과 가장 잘 배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3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강홍식의 노래는 차츰 대중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전문 가수들의 활동이 뚜렷하게 강화되면서 연극, 영화 등과 장르를 넘나드는 가수들은 현저히 설 자리를 잃어 가게 됩니다. 게다가 트로트 음악이 전체 가요계를 휩쓰는 풍토 속에서 강홍식의 실실이 늘어지는 듯한 타령조와 전통적 색조가 느껴지는 창법은 비정하게 주변부로 밀려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월이 떠밀리게 되면 그 대세를 어찌할 수 없이 받아들이고 울며 겨자 먹기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 인생의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인기의 중심에서 멀어진 가수 강홍식은 연극영화계로 다시 복귀를 시도하지만 그곳에도 이미 자신이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직후 고향인 평양으로 떠나간 강홍식은 당시 아무런 콘텐츠도 갖추지 못한 궁벽한 북한 영화계의 개척자로서 새로운 꿈과 열정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북한 영화의 기초를 닦아놓고 1971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양의 애국열사릉에 그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